

“오직 목표는 대선 승리”...민주 원팀 구성 속도낸다

이낙연 승복 선언...경선 후유증 봉합
 당 대선 준비 몰두 동력 확보
 이재명 캠프 본선 대비 돌입
 광주·전남 의원들 행보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당사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하면서 민주당 대선 논란은 일단락됐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당 원팀'을 강조, 민주당이 경선 과정의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 민중당 대선 후보로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통해 전국의 민심 특히,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호남을 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자신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된 뒤 입장문을 통해 경선 승복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께 축하 드린다. 이 후보께서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원팀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속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당부도 곁들였다. 이 전 대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신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다"면서 "그것이 평생을 이룬 없는 지방당 원로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며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의 대선 준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고도 무효표 논란 등으로 당사 앞집회 등이 이어졌지만 이 전 대표의 결단에 따라 민주당은 대선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경선이 마무리되고도 논란이 이어지면 본선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비교적 빠르게 상처를 봉합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캠프가 새로 꾸려지는 등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원팀을 강조하면서 그를 지지했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무효표 논란이 단기간에 마무리돼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점에서 양 측이 빠르게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득, 오충일, 김원기 상임고문,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임채정, 이용희, 이해찬, 문희상, 추미애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누구를 지지했던 최종 목표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라면서 "호남의 결집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는 것이 당의 결정에 승복한 이 전 대표의 뜻에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당 상임고문단 상견례 “4기 민주정부 창출 위해 최선”

원팀 구성해 정권 재창출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오전 당 상임고문단 상견례를 하고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내년 대선은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격차가 생겼고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억울함 없는 공정한 사회, 기회 넘치는 성장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문희상, 김원기, 오충일, 이용득, 임채정, 이용희, 추미애 상임고문 등 과거 당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상임고문이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송영길 대표는 "특정 계파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아 온 이재명 후보의 선출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대변한다"며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고 상임고문님들의 지혜를 얻어 14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선 과정의 논란을 잘 수습하기 위해 오늘 당무회에서 지혜를 모아 원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후보 중심으로 당력을 하나로 모을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상임고문들은 이 후보에게 원팀 구성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고문은 당 경선이 훌륭히 마무리된 데에는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경쟁해줬기 때문이라면서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도 경쟁자를 넘어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충일 고문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 격정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빨리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고문은" 이 후보는 여러 고문의 경륜과 지혜를 이어받아 힘차게 나아가 달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상견례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이끌어 온 원로 어른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고 이 나라를 개혁할지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다"며 "워낙 대선배님들의 현명한 조언이어서 마음에 많이 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이기는 것이 이재명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상견례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다음 정부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단결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당무회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승복의) 명분을 찾아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대장동 대응 TF' 구성...이재명 철통 엄호 나선다

국민의힘 공세 전방위 차단

고발사주 의혹 규명 TF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철통 엄호하고 야권의 공세에 대한 반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및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출신의 김병욱 의원을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으로 하고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TF를 꾸려 야권의 대장동 공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재명은 당 차원에서 전방위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를 '이재명 청문회'로 치르겠다고 버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해 왔다. 자칫 특

정 후보 편들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박주미 의원을 단장, 소병철 의원을 부단장으로 하는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를 통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세에도 나선다. 박 의원이 단장으로 하는 이 TF도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 비리와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홍준표·윤석열과 오차범위 내 접전

한국갤럽 대선 양자대결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가장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가장 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 후보는 43.0%로, 윤 전 총장(40.4%)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이 후보와 홍 의원의 가장 대결 조사 결과는 각각

40.6%, 40.7%로, 홍 의원이 이 후보를 0.1% 포인트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9.0%)과의 양자 대결에선 45.2%,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28.9%)에 맞서선 45.5%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를 나타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PASS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
개원 1주년 기념
비전선포 및
정책포럼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행사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4:00

행사장소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참여방법
 오프라인 / YouTube

세부내용
 개회선언, 비전선포식, 유공자 표창
 정책포럼(주제발표, 패널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과제와 발전방향